

주간 전남 농업

VOL. 244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7월 다섯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기원, 벼 도열병 확산 우려...예찰, 방제 당부
정책동향 및 홍보 전남농기원, 아열대 과수 양매(베이베리) 설명회 개최
전남 시군 농정 동향 해남군, (주)티젠 새싹보리 생산 업무협약 체결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9. 07.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남농기원, 영농형 태양광...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 박차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22 ~ 24도, 최고기온 : 29 ~ 32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4 ~ 10mm)보다 적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6

- ▶ 채소 : (예보) 역병, 탄저병, 고랭지 무·배추 무름병, 뿌리혹병
- ▶ 과수작물 : (예보) 탄저병·사과갈색무늬병·점무늬낙엽병

3. 농산물 관측정보 7

- ▶ 건고추 재고 및 생육동향
- ▶ 마늘 생산 및 가격전망
- ▶ 양파 생산 및 가격전망
- ▶ 대파 출하 및 가격전망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5

- ▶ 전남농기원, 벼 도열병 확산 우려....예찰, 방제 당부
- ▶ 표고버섯, 빛으로 키우니 품질도 수량도 ‘빛나요’
- ▶ 바이러스 감염 적은 ‘우량 씨마늘’ 보급 나서
- ▶ 참깨, 제때 병해충 관리해 피해 줄여요!
- ▶ 가을감자 재배의 시작은 씨감자 선택부터!
- ▶ ‘여름철 축사 정전’, 철저히 대비 하세요
- ▶ 감귤 ‘황금향’ 열매 안 맺히는 원인은 ‘자근’ 때문

6.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4

- ▶ 전남농기원, 아열대 과수 양매(베이베리) 설명회 개최
- ▶ 전남농기원, 영농형 태양광...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 박차
- ▶ 전남농기원, 스마트팜 무선 자가망 업무협약 체결
- ▶ 전남농기원, 일본 토마토 수출 전문 농업 경영체 양성
-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준공
- ▶ 2019년산 맥류(보리·밀·호밀)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 ▶ 농식품부, 농협과 함께 마늘 1만 5천 톤 추가 구매
- ▶ 전남도, 롯데슈퍼 풍암점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3

- ▶ 해남군, (주)티젠 새싹보리 생산 업무협약 체결
- ▶ 담양군, 집중호우 발생 전 피해 최소화 위한 대비 당부
- ▶ 담양군, 딸기가공연구회 딸기잼에도 다양화를 도전하다
- ▶ 고흥군, 2019 대한민국 파인푸드 어워즈 특산물 정책 부문 대상 수상
- ▶ 고흥군, 태풍 통과 후 침관수 농작물 관리 요령
- ▶ 화순군, 돌발해충 총력방제 나서
- ▶ 화순군, 초당옥수수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 ▶ 해남군, 해남농수특산물 카카오톡에서 만나세요
- ▶ 무안군, 김산군수 중복더위에도 양파 홍보 이어가
- ▶ 함평군, 열대 거세미나방 예찰 강화 나서
- ▶ 영광군, 정윤수씨 청년농부 미디어 크리에이터 경연대회 대상 수상
- ▶ 장성군, “올 여름엔 아삭아삭 ‘차돌 복숭아’ 어때요?”
- ▶ 신안군, 양파생산 노력 및 비용절감을 위한 기계정식 교육

8. 해외 농업정보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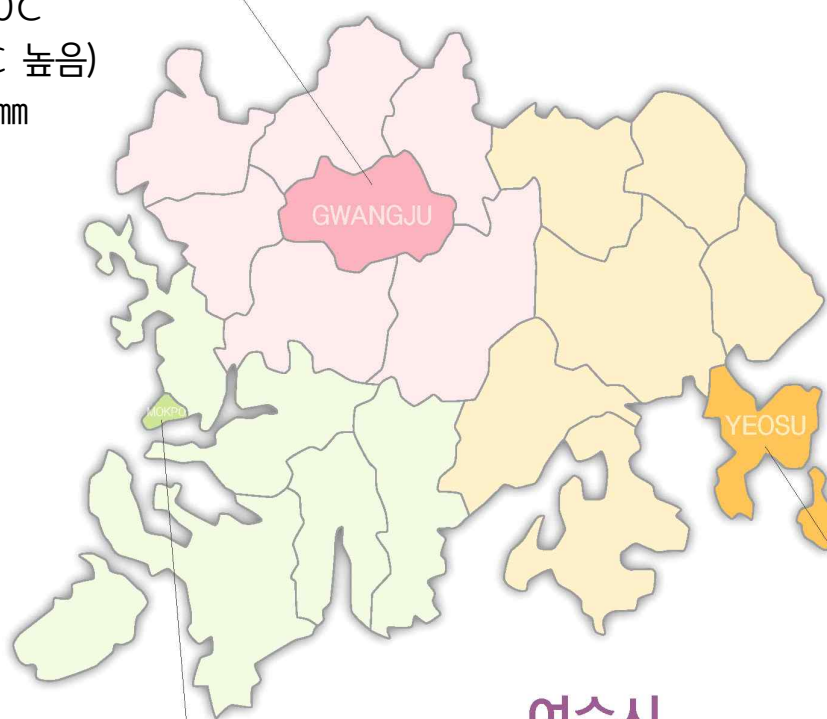
- ▶ 러시아의 토마토 시장 발전 전망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7.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9. 농식품 빅데이터(기상)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50

- ▶ 국립환경과학원
- ▶ 기상청 날씨누리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9.8℃
(평년대비 2.4℃ 높음)
- 최고기온 : 34.6℃
(평년대비 2.7 높음)
- 최저기온 : 25.0℃
(평년대비 1.0℃ 높음)
- 강 수 량 : 6.7mm



목포시

- 평균기온 : 27.8℃
(평년대비 0.9℃ 높음)
- 최고기온 : 31.6℃
(평년대비 0.7℃ 높음)
- 최저기온 : 24.0℃
(평년대비 0.1℃ 높음)
- 강 수 량 : 3.9mm

여수시

- 평균기온 : 27.4℃
(평년대비 1.2℃ 높음)
- 최고기온 : 30.9℃
(평년대비 1.6℃ 높음)
- 최저기온 : 24.0℃
(평년대비 0.2℃ 높음)
- 강 수 량 : 5.6mm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했으니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기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기관에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 예 보	병	· 벼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해충	· 멸강나방, 열대거세미나방, 멸구류, 혹명나방 등
채소	· 예 보	병	· 역병, 탄저병, 고랭지 무·배추 무름병, 뿌리혹병
		해충	· 진딧물류, 총채벌레, 응애류, 가루이류 등 등
과수작물	· 예 보	병	· 탄저병·사과갈색무늬병·점무늬낙엽병
		해충	· 돌발해충, 응애류, 노린재류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마늘·양파 입고량 전년보다 많을 전망



재배면적(전년 대비)		재배의향면적	가격(전년 대비)	
↑ +3~5%	↓ -2%	전년수준	↓ 약세	↑ 강보합세
건고추	4~6월 대파	2018 → 2019 → 7~9월 대파	건고추	대파



건고추 재고 및 생육동향

☘ 재고동향 : 6월 말 건고추 재고량 평년보다 감소

- 건고추 6월 말 재고량은 평년보다 46% 적으나, 전년 보다 많은 3천 700톤 내외로 추정된다.
- 6월 말 기준, 국내산 정부비축물량은 2,628톤이 남아 있다.

☘ 생육동향 : 고추 초기 생육 전반적으로 양호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6. 20.), 2019년산 고추의 초기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부 정식을 앞당긴 포전에서 냉해를 입었으나 대부분 작황이 회복되었고, 경북지역에 일부 우박 피해가 있었으나, 전체 작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만, 건고추는 여름철 기상에 따라 작황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늘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2019년산 마늘 생산량 평년보다 증가 전망

- 2019년산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늘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17% 증가(통계청 발표) 하였다. 마늘 작황은 당초 생육기 가뭄 및 큰 일교차로 수확을 앞둔 난지형 대서종과 한지형

마늘의 생육이 일시적으로 부진하였다.

- 그러나, 수확 직전까지 적절한 강우와 일조시간으로 작황이 회복되면서 평년보다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상여건 호조로 마늘 수확시기는 전년보다 다소 앞당겨진 가운데, 수확이 완료된 난지형 마늘은 건조 및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지형도 6월 내 수확이 종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전망 : 7월 가격 전월 대비 약세 전망

- 7월 깐마늘 평균도매가격은 생산량이 증가한 햇마늘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생산 및 가격전망

생산전망 : 2019년산 양파 생산량 평년보다 증가 전망

- 2019년산 중만생종양파 생육상황 조사 결과, 평년 대비 ‘좋음’ 56%, ‘비슷’ 30%, ‘나쁨’ 14%로 조사되었다.
- 중만생종양파 생육은 고온과 가뭄현상이 적게 나타나 양파 생육에 적절한 기상여건이 조성되어 수확 전까지 구비대가 원활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충청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생육이 부진한 포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전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산 중만생종양파 생산량은 기상호조로 평년 대비 17%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전망 : 7월 가격 전월 대비 회복 전망

- 7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중만생종양파 입고로 전월(440원) 대비 상승한 450~500원으로 전망된다.



대파 출하 및 가격전망

출하전망 : 7월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7월 출하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경기지역 노지대파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대파 단수는 5월 하순 이후 기상 호조로 작황이 회복되어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품성이 높은 대파의 비중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대파 7월 출하량은 출하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8~9월 출하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경기와 강원지역 노지대파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3~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7월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7월 대파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나, 상품성 이 좋은 대파가 적어 전년보다 다소 높은 상품 kg당 1,300~1,400원/kg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7. 29. 기준 / 단위: 원)

식량작물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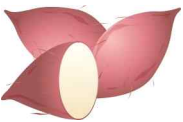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20kg	48,980	48,980	↑ 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980	45,920	39,533	↑ 23.9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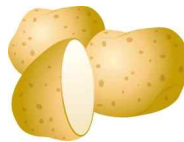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35kg	198,200	198,200	↑ 1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8,200	179,000	155,517	↑ 27.4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0kg	26,600	26,400	↓ 4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750	45,500	33,300	↓ 20.1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20kg	22,000	20,000	↓ 3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775	32,400	26,983	↓ 18.5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0kg	7,400	8,600	↓ 5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15,930	11,190	↓ 33.9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8kg	4,800	5,500	↓ 6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275	13,165	6,165	↓ 22.1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00개	57,667	41,000	↑ 55.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750	37,000	51,674	↑ 11.6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20개	18,600	11,800	↑ 11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900	8,749	12,867	↑ 44.6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30kg	560,600	560,600	↓	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3,600	591,650	366,000	↑	53.2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0kg	37,800	44,600	↓	3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750	59,800	45,007	↓	16.0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28.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5,000	125,000	125,000	↓	28.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20kg	8,400	8,600	↓	36.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800	13,160	17,560	↓	52.2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20kg	27,400	29,000	↓	3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250	42,830	32,960	↓	16.9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kg	1,800	1,800	↑	1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40	1,585	1,543	↑	16.7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5kg	13,600	13,200	↓	8.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950	14,800	14,723	↓	7.6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개	19,200	17,800	↓	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600	19,930	15,363	↑	25.0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0kg	17,600	18,000	↓	2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850	24,200	18,207	↓	3.3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5kg	13,800	15,200	↓	8.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050	15,150	13,670	↑	1.0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0kg	39,400	40,200	↑ 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550	37,500	42,128	↓ 6.5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5kg	72,400	66,400	↑ 9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1,000	36,300	50,767	↑ 42.6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0kg	42,000	42,000	↓ 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600	42,200	43,227	↓ 2.8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00g	8,171	8,403	↑ 3.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99	7,906	7,433	↑ 9.9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kg	5,075	5,052	↑ 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24	4,953	5,067	↑ 0.2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30kg	502,600	502,600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600	497,600	526,200	↓ 4.5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2kg	13,000	13,000	↓ 1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450	14,550	13,470	↓ 3.5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2kg	6,600	6,600	↓ 6.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600	7,050	7,170	↓ 7.9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00g	1,913	1,947	↓ 1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36	2,273	2,191	↓ 12.7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30개	5,063	5,131	↑ 1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42	4,487	5,723	↓ 11.5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9)	1주일전 (7/22)	전년대비	
1L	2,616	2,616	↑	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6	2,526	2,541	↑	3.0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7. 29.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77	5,651	5,551	↓ 1.3	↑ 0.5
	거세	6,791	6,814	6,840	↓ 0.3	↓ 0.7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337	3,384	3,104	↓ 1.4	↑ 7.5
	수	4,173	4,274	4,023	↓ 2.4	↑ 3.7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162	3,200	3,41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2	↓ 7.3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68	476	22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7	↑ 106.2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62	383	45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5	↓ 20.6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02	999	1,45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3	↓ 31.2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17	955	75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0	↑ 21.5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2,1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3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전남농기원, 벼 도열병 확산 우려....예찰, 방제 당부

- 높은 습도와 여름철 저온이 최적 발생조건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기상조건이 벼 도열병 발생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정밀예찰 강화와 초기방제를 당부했다.
- 도열병은 벼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요즘과 같이 높은 습도와 낮은 야간온도(20℃전후), 낮은 일조량 조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병은 어린잎은 물론 줄기, 이삭목에도 발생한다.
- 잎에 나타나는 증상은 방추형 병반이 생기는데, 안쪽은 회백색, 바깥쪽은 황색을 띠며, 이삭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줄기와 이삭목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색이나 흑색 병반이 생기는데, 피해 부위가 부러지거나 낱알이 잘 여물지 못하므로 피해가 더욱 크다.
- 도열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병이 시작되면 초기부터 등록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피하고, 논으로 찬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매년 병 발생이 심한 지역에서는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고, 모내기를 빨리하는 것이 좋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진희 연구사는 “온도, 습도 등 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제법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표고버섯, 빛으로 키우니 품질도 수량도 ‘빛나요’

- LED 재배 기술 개발... 청색, 수량 15% 늘고 폴리페놀 많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표고버섯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
- 2017년 기준 표고버섯 생산량은 2만 3,983톤으로, 국내 버섯 생산액의 절반(47.8%) 수준이다.
- 최근 표고버섯 재배에 톱밥이 쓰이면서 갈변을 위해 LED가 활용되고 있지만, 표고버섯에 맞는 재배 기술은 없는 실정이었다.
- 이에 농촌진흥청에서 '표고버섯 맞춤형 LED 재배 조건'을 연구한 결과, 푸른빛(청색) LED로 길렀을 때 품질과 수량이 우수함을 확인했다.
- 가로x세로x높이를 각각 60cm로 만든 상자에 청색, 백색, 녹색, 적색 LED를 100룩스(lux)부터 500룩스까지 100룩스 단위로 광원의 종류와 세기를 달리해 갈변 효율을 측정했다.
- 청색 LED로 재배한 표고는 형광등을 이용한 표고보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77.5ppm에서 88.9ppm으로 늘었다. 폴리페놀은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춰준다.
- 배지의 색도 측정했다. 청색 LED를 사용했을 때 명도는 37.4로 형광등을 사용(57.7)했을 때보다 갈변 효율이 높았고, 수량도 15% 이상 늘었다.
- 경제성 분석 결과, 전기료와 형광등 교체 비용은 줄고 수량은 늘어 1,000봉지당 50만 3,920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표고버섯 맞춤형 LED 재배 기술을 신기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바이러스 감염 적은 ‘우량 씨마늘’ 보급 나서

- 농촌진흥청, 24일 전남 무안에서 보급 사업 평가·협의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우량 씨마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4일 전남 무안의 시험 재배지에서 ‘난지 마늘 우량 종구(씨알) 보급 체계 확립을 위한 평가회’를 열었다.
- 2018년 종구 시범 재배 결과를 공유·평가하고, 올해 생산한 생장점 씨마늘 보급 계획을 논의하며, 보급 시스템에 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 우리나라 마늘은 재배 지역에 따라 한지형(의성, 단양, 서산 등)과 난지형(남해안과 제주 등)으로 구분하며, 난지 마늘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마늘 생장점을 잘라 전체 식물체를 분화하는 ‘생장점 배양 마늘’과 마늘 줄기 끝에 붙어있는 주아(으뜸 싹)를 씨마늘로 다시 활용하는 ‘마늘 주아 재배’ 방법으로 우량 난지 씨마늘을 생산·보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바이러스 감염이 적고 생육이 왕성하며 수량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생장점 배양’으로 만든 우량 마늘 종구를 총 32,580kg 보급했다. 지난해에는 생장점 마늘 3,260kg과 주아 재배 방식으로 대주아 190kg을 함께 분양했다.
- 그 결과, 경남 남해와 전남 무안, 고흥 등은 지역에 따라 씨마늘 수량이 15~30%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마늘 크기도 커서 재배농가의 반응도 좋았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참깨, 제때 병해충 관리해 피해 줄여요!

- 생육 중 · 후기 발생 주요 병해충 특징과 관리 방법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께 참깨 생육 중·후기에 발생하는 역병, 시들음병, 잎마름병 예방을 위한 방제를 당부했다.
- 역병은 땅에 가까운 줄기가 갈색으로 변하며 지상부가 누렇게 말라간다. 잘룩한 형태로 보이기도 하며, 고온 다습할 때 잘 나타난다. 특히 침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시들음병은 새순과 잎 끝부분부터 시들며 줄기 속이 적갈색으로 변한다. 일부는 줄기 반쪽이 썩으며, 건조한 땅에서 잘 발생한다. 땅 쪽 줄기의 색이 변하면서 말랐다면 윗부분을 가로로 잘라 물관을 확인한다. 갈색이면 시들음병, 그렇지 않다면 역병이다.
- 잎마름병은 줄기나 꼬투리에도 증상이 나타난다. 잎에는 불규칙한 갈색무늬, 줄기에는 갈색 점선 형태를 띤다.
- 이와 함께 왕담배나방 애벌레, 진딧물류, 노린재류 등 해충 방제도 필요하다.
- 왕담배나방 애벌레는 참깨의 줄기를 갉아먹어 쉽게 부러지게 만든다. 꼬투리를 갉아먹거나 구멍을 내어 수량이 줄어든다.
- 진딧물류는 복숭아혹진딧물, 목화진딧물 등이 있다. 잎과 줄기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으며, 건조할수록 많이 발생한다.
- 노린재류는 풀색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등이 있다. 꼬투리가 달릴 때부터 종실에 피해를 줘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출처 : 농촌진흥청

가을감자 재배의 시작은 씨감자 선택부터!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통감자 이용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을감자 재배 시 씨감자가 썩어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감자를 구입하여 파종하도록 당부하고, 통감자의 보관 방법을 소개했다.
- 가을감자는 한여름에 파종하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환경조건으로 씨감자가 많이 썩게 되어 농가들은 충분한 출현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일반적으로 씨감자를 2~4등분하여 한 쪽이 30~40g 정도 되게 잘라 심고 있으나, 가을재배는 씨감자를 절단할 경우 썩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통감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칩 가공성이 우수한 가을감자 신품종의 씨감자 형태별 재배생리특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씨감자를 절단해서 심으면 감자 싹의 출현율이 40~80% 수준으로 낮으나, 10~60g 크기의 통감자를 심으면 86~100%까지 높아졌다.
- 가을재배용 통감자의 싹을 잘 틔우려면 수확 후 저온(4℃ 정도)에서 2~3주간 보관한 후 고온으로 옮겨 보관하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6월 중·하순에 수확하고 크기가 30g 이상인 통감자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싹이 트는 확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진다.

- 반면에 7월 상순에 수확하거나 20g 미만의 통감자는 싹이 트는 비율이 50~60%로 낮다.
- 가을재배에 알맞은 감자에는 '새봉', '대지', '추백', '고운' 등이 있다.
- 특히 '새봉'은 재배기간이 짧고 수량도 1,000㎡당 3,053kg으로 높다. 감자칩 가공과 감자전, 튀김 요리에도 적합하다.
- 올해 '새봉' 씨감자는 약 8톤을 생산하였으며, 구입처와 재배방법은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033-330-1513)에 문의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구본철 소장은 "8월에 심는 가을감자는 되도록 통감자를 이용하고, 싹이 나온 것을 확인한 후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가을감자 주산지에서 현장실증연구를 통해 통감자의 이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여름철 축사 정전’, 철저히 대비 하세요

- 정전 경보기 설치하고 전력량 120%로 자가발전기 준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불볕더위로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고 정전 위험성이 높아지는 여름철 정전 대비·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 축사에는 물과 사료를 공급하는 장치와 환기·냉방 시설 등 전기가 필요한 자동화 시설이 많아 여름철 정전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축사 전체가 밀폐되어 있는 무창식 축사는 정전으로 환기팬이 멈추면 축사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오르고 유해 가스 농도가 높아져 가축이 단시간에 죽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 철저히 정전에 대비해야 한다.
- 자가 발전기는 소요 전력량의 120%로 설치하며, 연료 점검과 시험운전으로 평상시 작동 여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전 발생을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전 경보기를 설치한다.
- 개방식 축사는 정전이 발생하면 바람막이를 최대한 열고 밖에서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장애물을 치운다.
- 직사광선이 가축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그늘막을 설치한다.
-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과도하게 뿌릴 경우, 상대 습도가 높아져 오히려 가축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여름철 갑작스런 벼락이나 전기합선에 의한 정전도 대비해야 한다.
- 피뢰침을 점검하고 전기선은 충분한 용량의 굵기로 설치해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이프 등에 넣어 시공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감귤 ‘황금향’ 열매 안 맺히는 원인은 ‘자근’ 때문

- 수량 감소와 밀접...땅 위로 대목 나오게 심으면 예방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감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에 이어 '황금향'에서도 수량을 떨어뜨리는 '자근' 발생을 확인했다며, 묘목을 생산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자근'이 발생한 황금향 나무

- 수확 시기가 늦은 만감류 품종은 탕자나무 대목(밑나무) 위에 감귤 접수(가지)를 접붙여 묘목을 만든다. 이때 탕자나무가 아닌 접수에서 나온 뿌리가 '자근(自根)'이다.
- 감귤나무에 자근이 발생하면 꽃과 과일 맺는 양이 줄어 전체 생산량도 줄게 된다.
- 조사 결과, 이번에 처음 자근이 발생한 황금향 나무는 나무 세력이 강해지고 주간부(원줄기)가 굵어지며, 꽃 맺음(착화)과 과일 맺음(착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 자근이 발생했던 다른 만감류 처럼 대목이 땅 위로 0~3cm 정도만 나오게 낮게 접붙인 곳과 아예 대목을 재배지 땅에 묻은 과수원에서 발생했다.

- 농촌진흥청은 한라봉(부지화), 천혜향(세토카), 레드향(감평), 황금향(에히메28호)이 우리나라 전체 만감류 품종(3,932ha)의 91.8%를 차지하는 만큼, 만감류 묘목을 생산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자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묘목을 만들 때 접목 높이를 땅 위 6~10cm 높여서 접을 붙이고, 묘목을 옮겨 심을 때도 대목이 땅 위로 6~10cm가량 충분히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 이미 자근이 발생한 농가에서는 자근을 원줄기(주지)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 기계톱 등을 이용해 잘라낸다. 잘라낸 부위에는 도포제를 발라 상처 부위가 2차로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현재욱 소장은 "주요 만감류의 수량을 떨어뜨리는 자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묘목을 심을 때 대목이 충분히 노출되도록 하는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만감류 자근 발생 원인과 생리를 담은 책자와 홍보지를 보급하고 교육을 진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아열대 과수 양매(베이베리) 설명회 개최

- 전남도 유망 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양매, 올리브, 구아바 소개 -

- 최근 지자체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아열대 작목이 도입되고 있지만 시설비와 난방비의 비중이 높아 노지나 무가온 하우스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목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 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새로운 아열대 과수로 떠오르고 있는 양매(베이베리)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과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소비자 트렌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과일의 수입과 함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양매를 보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 양매는 소귀나무과의 상록 교목으로 주로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우리나라 제주도 등이 원산지이다. 열매 크기는 7g 정도 이고 당도 14.4°Bx, 산도 1.2%의 새콤달콤한 과일로 검붉은 색이 매력적이다.
- 수확기는 6월 하순~7월 상순이며 숙취나 소화불량,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으며, 피로회복, 고혈압·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조혜성 연구사는“양매(베이베리)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전남의 새로운 특산 과수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영농형 태양광...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 박차

- 연구기관, 농업인 등 300여 명 참여 국제 심포지엄 성황리 마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한전 전력연구원(원장 김숙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활용한 농업에너지 자립과 새로운 농업외 소득원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한국전력본사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 이날 심포지엄에는 독일 프라운호퍼사와 일본 치바에코에너지사, 중국의 GCL사 등 국내외 연구자 및 국내 영농형 태양광 관련 단체,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7개 주제발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 토론자로 나선 독일의 프라운호퍼사 강진숙 연구원은 독일 APV의 최근 연구 및 산업개발 발표를 통해 급격한 기온상승에 따른 차광효과로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작물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 이어 일본의 치바에코에너지사의 마가미 박사는 일본 영농형 태양광의 가장 큰 목표는 농업인 소득증대 및 휴경 농지 활용 증대로 농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끝으로 전남농업기술원 김희곤 연구관은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 연구 성과와 방향”발표에서 영농형태양광 하부에서 일사량 부족으로 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 아울러 순천소재 영농형 태양광 관련업체인 파루본사와 보성에 있는 영농형 태양광 현지 시설을 둘러보는 현장 워크숍을 진행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스마트팜 무선 자가망 업무협약 체결

- 광역 무선망! 농업생산단지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스마트팜 확산사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범위 무선통신이 가능한 전남도내 산업체인 (주)한국스마트시티(대표 박경득)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이 농작물 생육진단과 수확을 하고, 병해충방제 등 노령화 되어가는 농촌인력을 대체할 첨단기술이 실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이 취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확산사업’이 더디고,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농업의 현대화 및 첨단화를 이끌고자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시설하우스 대부분은 인터넷 통신이 해결되지 못해 스마트팜 확산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특히 첨단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센서데이터와 영상데이터를 수집·활용해야 하지만 데이터 량 및 송수신 속도의 제약을 받아왔다.

- 광역 무선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센서 활용이 더욱 활발하게 되고, 농업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쉽다. 전남도는 최근 고흥만 일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였으며, 혁신밸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첨단기술 실증 및 전남도내 전체에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 활용 및 확산에는 첨단 통신기술이 필수요소이다.
- 이에 전남농기원은 정보통합 스마트 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농업분야의 개별 정보를 통합하여 생산과 유통, 판매분야를 포함한 농업주변의 정보까지 통합함으로써 농업을 효율화 하고자 하는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각종 정보통합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융·복합 지능화된 스마트 농업을 개발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희곤 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농업분야 서비스 발굴은 물론 스마트팜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그리고 도시와 농촌을 서로 연계하여 하나의 통신공동체로 묶어내기 위한 다양한 모델, 공동 개발로 분야별 수집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 및 연구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여 더 많은 분석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일본 토마토 수출 전문 농업 경영체 양성

- 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수출시장 공략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토마토 수출확대 및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일본정부의 식품안전성 강화에 대응하고자 도내 수출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 수출토마토 ID(코드부여)농가 교육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과 함께 수출 토마토 농업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찾아 재배 요령, 안전성 관리와 병해충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 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을 위해서 수출토마토 경영체는 연간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토마토 재배 경영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약 안전사용 관리, 재배 포장 위생관리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실시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김덕현 팀장은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출 다변화와 소비자 선호 품종, 품질향상 등 판로개척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과 도내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준공

- 채소 · 과수 · 화훼 실증 연구로 하절기 안정적인 작물 생산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을 짓고 26일 준공식을 열었다.
-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설 작물의 폭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민간에서 개발한 고온 극복 기술의 현장 보급 가능성과 채소·과수·화훼 등 적용가능 작물 등을 실증하기 위해 지은 시설이다.
- 일반적인 광폭 비닐 온실(폭 22m 높이 7m)보다 높이와 넓이를 확대(폭 52m, 높이 16m)하고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 여름철 내부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췄으며, 작물 지하부의 정밀한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양액시스템을 설계했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이 온실에 7월말 1차적으로 딸기와 장미를 심어 생육과 생산, 품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준공식에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훌륭한 기술이 있다면 민간의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틀이 되도록 기술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2019년산 맥류(보리·밀·호밀)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맥류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 종자에 대해 오는 7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급하는 맥류 보급종 종자는 식용(겉보리·쌀보리·밀) 및 사료용(청보리·호밀) 종자로서 식용보리 2,112톤, 밀 450톤, 사료용 488톤으로 총 3,050톤이 신청한 농업인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 2019.1.1.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확대 적용으로 현재까지 등록된 소독약제가 없는 2작물(밀·호밀)에 대해서는 전량 미소독으로 공급하고, 보리만 용도에 맞게 소독과 미소독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 특히, 이번에 확대 공급하는 호밀(품종: 곡우)은 수확시기가 빠르고 환경 적응성이 높으며 풀사료, 사일리지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호밀의 국내 자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맥류 보급종 종자의 공급가격은 1포당(20kg) 겉·청보리 소독 22,950원, 겉·청보리 미소독 21,550원, 쌀보리 소독 25,420원, 쌀보리 미소독 24,020원, 밀 미소독 25,270원, 호밀 미소독 42,510원이며, 보급종 종자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9월 1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공급받을 수 있다.
- 한편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감자 보급종 종자 공급기관인 감자종자진흥원과 협력하여 올해부터는 맥류 보급종 종자의 신청기간과 같은 기간에 감자 보급종 종자도 신청할 수가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협과 함께 마늘 1만 5천 톤 추가 구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산 마늘의 산지거래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과 함께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 이번 추가대책은 2만 3천 톤 정부구매 등 전례 없는 시장격리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과 이에 따른 농가의 향후 판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 농식품부는 올해 공급 과잉이 문제되는 대서종 마늘 산지거래가 현재까지 절반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판로가 불확실한 농가 보유물량 부담이 낮은 산지 시세가 지속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 이에 정부는 7월 29일부터 농협과 함께 난지형 마늘 1만 5천 톤을 긴급히 추가 구매하고, 산지 출하기 이후에 출하할 예정이다.
- 참여 농협은 추가 구매한 물량을 9월까지 출하하지 않고 의무보관 하되, 향후 판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산지농협이 일정 부분 분담한다.
- 또한, 구매대상은 농가 보유물량으로 한정하되, 대상 품종, 구매 물량 및 단가, 구매 규격 등은 산지여건에 따라 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최대한 신속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한편, 이번 추가 구매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정부는 2019년산 마늘에 대해 수급 상 공급 과잉량(4만 7천 톤)을 초과하는 총 5만 2천 톤을 시장격리 또는 출하조절 조치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롯데슈퍼 풍암점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 29일 화순 도곡 로컬푸드 선배...안정적 판로 확보 기대 -

- 전라남도과 롯데슈퍼가 손잡고 광주 풍암점에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한다.
- 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롯데슈퍼 풍암점의 기존 ‘신선식품 매장’을 29일부터 ‘화순 도곡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전환한다.
- 전남 10대 고품질 쌀로 선정된 자연속(愛)순미, 화순 특산물인 복숭아, 포도, 파프리카, 옥수수 등 신선 농산물과 불미나리즙 가공식품 등 200여 상품이 입점한다.
- 풍암점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가 아침에 갓 수확한 농산물을 오전 9시까지 매장에 진열하며,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을 도입해 운영한다.
- 김응걸 롯데슈퍼 상품본부장은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며 “광주전남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통해 중소농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 지역 농특산물이 명성을 얻도록 판매와 소비 촉진을 돕겠다”고 말했다.
-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슈퍼마켓 업계 국내 1위인 롯데슈퍼와 농도 1번지 전남이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첫 단추를 꿰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 농업인이 마음 편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해남군, (주)티젠 새싹보리 생산 업무협약 체결

- 새싹보리, 깨끗하고 안전한 해남산으로 드세요 -

- 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군은 2019년산 유기농 새싹보리 6.7ha(2만 평) 면적을 (주)티젠과 계약재배할 계획이다. 새싹보리 재배는 연차적으로 2020년 33.3ha(10만 평), 2024년까지 133ha(40만 평)로 확대해 나간다.
- 이번 업무 협약으로 보리 수급 안정은 물론 새로운 소득작목인 새싹보리 재배확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티젠은 업계 최다 종류의 차 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능성 차 전문 기업으로 해남 계곡면 일대에 8만 평 규모의 다원을 운영, 녹차와 말차, 국화 등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로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주관 백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 새싹보리는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해독작용, 항산화 효과, 콜레스테롤 조절 등 다양한 효능으로 최근 분말이나 차 등 식품 소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 : 해남군



담양군, 집중호우 발생 전 피해 최소화 위한 대비 당부

- 담양군(군수 최형식)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비 요령 전파에 나섰다.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한 뒤 부실한 곳은 보수를 해야 하며, 집 안팎의 하수구와 배수구의 막힌 곳도 정비해 집중호우 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 이외에도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은 반드시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알아두어야 하며, 하천변 주차장이나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하에 주차한 차량은 즉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한다.
- 특히 농촌과 산간지역 등 인가가 드문 곳에선 가까운 이웃과 연락망을 갖추고, 인근에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사전에 연락을 취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 군 관계자는 “비상시를 대비해, 재난정보를 청취할 수 있는 휴대용 라디오와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유사시에는 망설이지 말고 담양군청 재난종합상황실(061-380-3344) 등 재난관련기관의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출처 : 담양군



담양군, 딸기가공연구회 딸기잼에도 다양화를 도전하다

- 농촌진흥청이 특허받은 딸기 고품종 & 휘핑크림 제조기술 교육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경쟁력 있는 가공품 생산으로 담양 딸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3일, 딸기가공연구회원 20명을 대상으로 고품종과 휘핑크림 제조기술 교육으로 딸기잼 다양화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소속으로 특허기술을 직접 개발한 박보람 연구사를 초빙하여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먹는 고품종과 머쉬멜로우처럼 가볍고 크림미한 식감의 휘핑크림 제조기술을 실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 6월에도 루바브를 첨가하여 새콤달콤한 맛의 딸기루바브잼 제조교육에 이어 체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고품종과 휘핑크림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군 주 농산물인 딸기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담양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고흥군, 2019 대한민국 파인푸드 어워즈 특산물 정책 부문 대상 수상

- CJ헬로 주관 농수축산물 판매행사 고흥관 성황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CJ헬로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후원하는『2019 대한민국 파인푸드페어』전국행사에서 특산물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 고흥군은 지난 7. 19 ~ 7. 21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CJ관계사와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 일반인을 상대로 우리군 농수특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국내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 『2019 대한민국 특산물 정책부문 대상』은 여론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선호도를 측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 이번 박람회에는 고흥 대표 특산품인 유자, 석류 가공품을 비롯하여 수산물, 곡류, 장류 등 고흥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가공품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다양한 상품의 시식, 시음행사와 이벤트 상품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 또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흥커피 소개 부스를 운영하여 고흥로컬 커피의 그윽한 향과 맛을 선보여 홍보관 방문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아 고흥커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아울러, 고흥군에서 최근 육성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고흥 유튜버들이 현장 동영상 촬영을 통해 개인의 채널에 홍보하고 재경향우회 자발적인 참여로 고흥 농수산 홍보에 큰 힘을 보태 고흥 홍보관이 성황을 이루었다.

*출처 : 고흥군



고흥군, 태풍 통과 후 침관수 농작물 관리 요령

- 병해충 방제 및 생육부진 포장 비료 엽면시비 실시 -

- 고흥군(군수 송귀근)에서는 최근 장마와 태풍 통과 후 침·관수 되었던 농작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20일 오후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상륙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고 고흥 관내 일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장마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조량 부족해 대부분의 작물이 연약한 생육 상황을 보이고 있어 병해충 발생 등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침·관수된 벼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 고추는 물이 빠진 즉시 역병, 탄저병, 세균성점무늬병 등 병해충 긴급 약제방제를 실시하고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0.2%액이나 4종 복비를 5~7일 간격으로 2~3회 엽면시비하여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 과수는 토양 과습으로 인해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예방적 병해 방제를 철저히 하고 수세 회복을 위해 요소 0.2%액을 엽면시비 해 주어야 한다.
- 군 관계자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로 생육이 부진한 작물은 병해충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병해충에 대해 철저히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고흥군



화순군, 돌발해충 총력방제 나서

- 과수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유인트랩 400여 농가에 지원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에 의한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획용 유인트랩을 지원한다.
- 군은 돌발해충 친환경 방제를 위해 약 1억 원을 투입해 402개 농가에 돌발해충을 유인해 포획하는 트랩을 제공했다.
- 오는 29일부터는 돌발해충 성충 발생 밀도를 파악해 그 결과를 반상회보, 이장회의 등을 통해 농가에 안내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올해 초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발생 비율이 다소 높아 성충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부한 유인트랩을 8월 10일 이전 작물 1.5m 높이에 설치하고 예찰과 방제 활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은 8~10월 가지 등에 알을 낳아 알 상태로 겨울을 지낸다. 이듬해 5월 알에서 나와 활동을 시작하고 7~11월까지 잎과 줄기의 수액을 빨아먹는다. 배설물 때문에 그을음병이 발생하고 알을 낳은 가지는 말라 죽게 된다.

*출처 : 화순군



화순군, 초당옥수수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 초당옥수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새로운 틈새 소득원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초당옥수수 재배 시범사업’ 평가회를 오는 29일 도암면 지월리 이창진 농가 포장(구 옥수수가공공장 인근)에서 개최한다.
- 이번 평가회는 초당옥수수가 화순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가 사례발표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틈새 소득원 개발을 위해 군이 지원해 4농가가 1.7ha에서 초당옥수수를 시범적으로 재배했다.
- 초당옥수수는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생으로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3~5분만 익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다른 옥수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칼로리는 낮고 당도는 높아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 올해 시설 재배로 6월에 판매한 농가의 경우 일반 옥수수보다 1.5배 많은 가격(1개당 1500원)에 판매했다. 노지 재배 농가도 7월부터 수확해 유통업체와 계약하거나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 초당옥수수는 종자 가격이 비싸고 판로에 어려움이 있지만,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있어 최근 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출처 : 화순군



해남군, 해남농수특산물 카카오톡에서 만나세요

- 카카오커머스 모바일 유통 업무협약 체결 -

- 해남군이 모바일 유통의 선두업체인 (주)카카오커머스와 손잡고 모바일을 통한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에 나선다.
- 해남군은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서 (주)카카오커머스와 지역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라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해남군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 업무협약을 통해 해남군과 카카오커머스는 지역특산물의 홍보, 유통, 판로개척 등에 대한 정보교환과 판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해남군은 카카오커머스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촉진 활동으로 카카오톡 내 톡스토어 및 쇼핑하기, 톡딜 등을 통해 지역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하게 된다.
- 카카오커머스는 2018년 12월 (주)카카오에서 분사해 회원수 3,100만 명, 누적거래액 1조 원을 달성한 IT 서비스 기업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스타일, 장보기, 다음쇼핑을 서비스하고 있다.

- 스마트폰 대중화로 모바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쇼핑의 대표주자인 카카오커머스 제휴를 통해 해남의 우수한 농수산물들이 새로운 판로로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모델을 갖추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e커머스(e-commerce, 전자상거래) 산업을 통한 농수특산물 유통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협약식에 참석한 강형석 해남 부군수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온라인 시장에서 해남군과 카카오커머스가 상생파트너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해남 농수특산물이 카카오커머스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3일부터 카카오커머스에 해남농수특산물 20여개 품목이 입점한 상태로, 카카오톡 쇼핑하기 등에서 해남미소를 검색하면 관련 농수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출처 : 해남군



무안군, 김산군수 중복더위에도 양파 홍보 이어가

- 양파의 고장 무안군의 김산 군수가 중복 더위에도 수도권에서 무안양파 판매 촉진과 홍보에 구슬땀을 흘려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 김산 군수는 이달 22일 이른 아침 무안을 출발해 경기도 구리시를 방문하여 전통시장내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무안양파를 홍보하고 직거래행사를 개최하여 구리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의 박수를받았다.
- 이날 직거래행사에는 안승남 구리시장, 박석윤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부의장을 비롯해 재경 무안군 향유회 김정길 회장과 박봉재 사무총장과 향우, 그리고 구리시 새마을협의회원, 구리시전통시장 상인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뜻깊게 이뤄졌다.
- 직거래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농민들이 땀 흘려 지은 양파 농사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이 무더위에 무안군수와 재경무안향우회가 수도권까지 방문하여 양파홍보를 하는 것에 찬사와 함께 많은 격려를 보냈다.
- 김산 군수는 “무안양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구리시민들에게 감사하다” 면서 “앞으로 구리시와 무안군이 더 많은 교류와 상호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또한 “오는 7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23회 무안연꽃축제에도 다녀가시면 좋겠다.”고 밝히며 발로 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출처 : 무안군



함평군, 열대 거세미나방 예찰 강화 나서

- 최근 열대 거세미나방이 전남 및 경남 지역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검역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나섰다.
-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열대 거세미나방은 아메리카 원산인 돌발 해충으로, 화본과 작물인 옥수수, 벼 등 8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식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기류를 타고 하루 1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암컷 한 마리가 최대 1,000개 가량의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어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는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후 여수, 보성, 해남, 영암 등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 함평군도 대동면 월송리 사료용 옥수수 재배필지에서 예찰을 하던 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에 의해 최초로 발견, 국립농업과학원에 동정의뢰를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
- 센터 관계자는 “열대 거세미나방은 번식속도가 빨라 적기 방제가 안 되면 농가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적기 방제를 위해 지역농가의 적극적인 예찰 및 방제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영광군, 정운수씨 청년농부 미디어 크리에이터 경연대회 대상 수상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8일 순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11회 정보화농업인전진대회’에서 영광군의 정운수씨(39)가 청년농부 미디어 크리에이터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 이번 경연대회에 11명의 청년농부들이 참여해 15분 동안 자신이 준비해 온 콘텐츠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정씨는 자연재해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농부의 진솔한 일상을 소개했다.
- 정씨는 평소에도 영상 제작·활용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며 지난해에 청년창업농 성공사례영상 농림부 장관상, 농어촌공사 주최 공모전 우수상·농림부장관상, 농협주최 공모전 2등을 수상한 바 있다.
- 이번 경연대회에서까지 대상을 수상한 그는 앞으로 농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또 다른 농부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현재 그는 농촌진흥청 영상기자단 팀장과 대통령직속 국가발전위원회 영상스토리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농부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편집 강의를 하고 있다.
- 정씨는 “친환경 농업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또 ‘슈파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영광군의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영광군



장성군, “올 여름엔 아삭아삭 ‘차돌 복숭아’ 어때요?”

- 25일부터 차돌 복숭아 출하 -

- 장성군의 대표 여름 과일인 ‘차돌 복숭아’가 25일부터 출하를 시작한다.
- 차돌 복숭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속이 짝 차 있어 식감이 뛰어나다. 특히, 무더위에 지친 기력을 회복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 여름철 과일로 제격이다.
- 또 과육이 단단해 일반 복숭아보다 두 배 가까이 저장력이 강하다. 저온에서 보름 이상 보관이 가능해, 바캉스에 가져가기 좋다. 게다가 복숭아 특유의 잔털이 없어 알러지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 장성 차돌 복숭아는 엄격한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최상급의 상품만을 출하하고 있다. 올해 장성군에서는 47ha 규모 115농가에서 복숭아를 재배했는데 그 가운데 80% 가량을 차돌 복숭아가 차지할 정도로 농가에서도 인기가 높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금년에는 재배기간 동안 야간 온도가 낮아 당도가 특히 높다”면서 “올 여름 피서길에는 장성 차돌 복숭아를 꼭 챙겨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올해 장성군 차돌 복숭아의 출하는 8월 15일까지 약 20여 일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당도는 평균 12브릭스(brix) 이상으로, 4.5kg 한 박스 당 가격은 중품 2만5천 원, 상품 3만 원이다. 구입 문의는 진원농협 복숭아 공선회(061-392-5034)로 하면 된다.

*출처 : 장성군



신안군, 양파생산 노력 및 비용절감을 위한 기계정식 교육

- 신안군은 7월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및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양파 재배농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양파 기계정식 요령과 안정적인 상자 육묘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양파 기계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육묘요령과 잎자르기, 비닐피복요령 등 실질적인 농가 활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양파정식기의 사용방법과 취급조작요령 교육을 통해 임대농작업기의 활용도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 신안군은 양파 재배면적이 1,318ha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양파 주산지로 2016년부터 양파 정식기를 각 읍면 농기계임대사장에 배치하여 양파 정식에 따른 노동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2019년에는 양파기계 정식 확대를 위해 100여 농가에 종자코팅비를 지원하였으며 읍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양파기계 정식에 필요한 파종기 13대, 전엽기 18대, 휴립피복기 13대, 양파정식기 12대를 보급하여 양파기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 신안군은 민선7기 공약 사업인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신안 주력작목인 마늘, 양파, 대파, 시금치 기계화 작업을 위한 교육 및 시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밭작물 기계화로 농업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패러다임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신안군



러시아의 토마토 시장 발전 전망

- 러시아의 온실 토마토 생산량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 정부는 수입품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온실 건설 및 국내채소 생산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 러시아의 토마토 생산 -

- 최근 수년간 러시아의 채소 수확량이 증가했고, 주로 개방된 땅에서 생산된다. 야채 수확량의 2/3은 남부, 중앙 및 볼가 연방 지역에 속한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온실 수확량 증가로 인해 토마토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지역, 보호지역 모두 가계 인구가 토마토의 주요 생산자이다.

- 러시아에서의 토마토 소비 -

- 토마토의 가장 높은 특정 소비량은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관찰되며, 주민들은 소비를 위해 토마토를 기르고 있다. 향후 몇 년간은 인구와 소득의 증가로 토마토 소비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 터키 토마토가 러시아시장에 미치는 영향 -

- 2017년 중반에 러시아는 터키에서 여러 품목을 들여오는 것을 허용했으나, 아직 터키 토마토는 향후 3년 동안은 금지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 농업기구들은 온실 생산을 더욱 늘리고, 시장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2016년 러시아 온실

토마토 생산량은 2015년에 비해 18% 증가했다. 2020년까지 새로운 산업단지의 건설로 인해서 2016년에 비해 3.7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수입산 토마토 의존도는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지만, 여전히 수입산 의존도는 잔존할 것이다.

- 러시아에서 2016년 식량금지령 도입 전까지는 터키가 2015년의 수입에서 51%를 차지하는 토마토 공급국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가진 터키와 협력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2016년 상황은 유사한 가격, 품질로 모로코의 토마토가 공급량의 25% 정도를 대체했지만 토마토의 소비와 수입은 계속 줄어들었다.
- 2017년 초에는 2016년 초에 비해 토마토 수입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

- 러시아에서는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많은 품목이 수입금지가 되었다. 그 후 수입품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농업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아직 러시아 생산자의 토마토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편이다. 토마토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채류 중의 하나이지만, 러시아의 현재 경제여건상 가격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터키산이 들어올 때 러시아의 토마토 시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 그리고 한국의 시장공략 가능성은, 토마토는 신선농산물이어서 유통될 수 있는 지역이 극동러시아 지역에 국한되고, 러시아의 현지는 중국과 맞닿아 있어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산 토마토로 러시아를 공략한다면, 가격면에서 고급화 정책을 펼쳐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7.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 옥수수 선물가격, 미국의 날씨 전망 개선에 하락세로 마감 -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7%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금요일 시세차익 거래로 인해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국의 홍수, 유럽의 더위, 호주의 가뭄 속에 세계 경쟁국들이 농작물 수확 전망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밀 농부들은 기록적인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
-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0%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지난 주말 미국의 수출 실적 부진과 미국의 날씨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금요일 3회 연속 하락하며 한 주를 마감했다.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1%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다음 주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담을 앞두고 금요일 소폭 상승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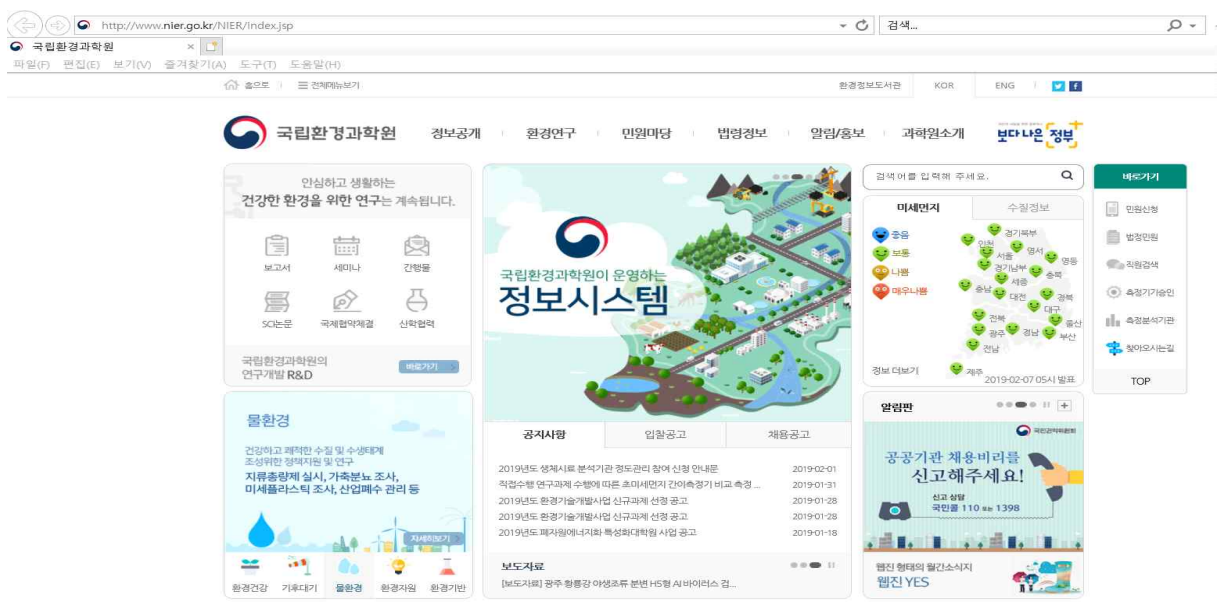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국립환경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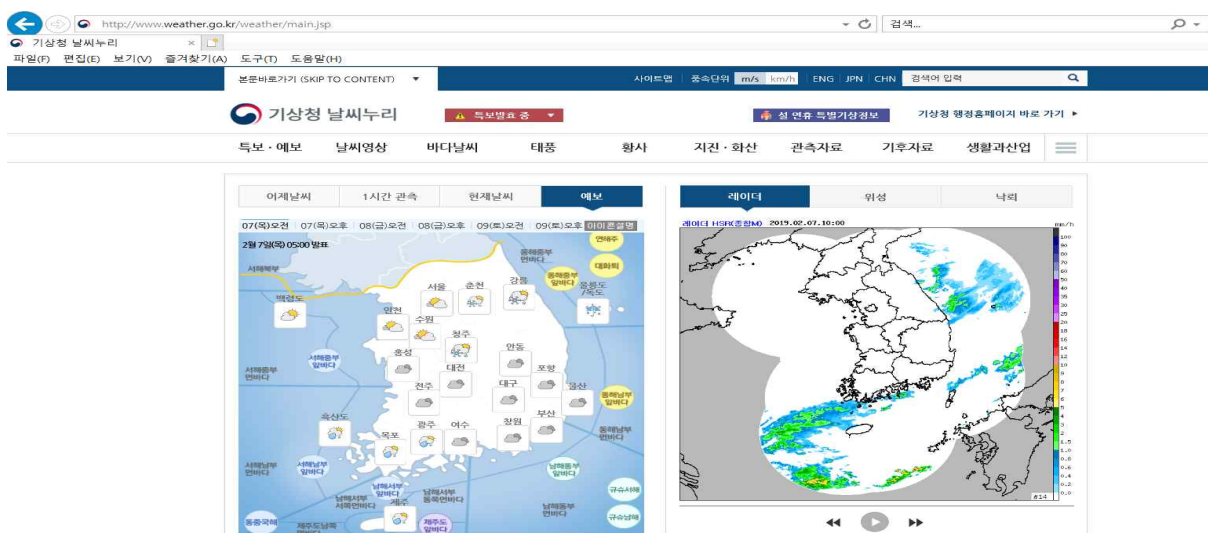
- 농사에 필요한 날씨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연구의 환경데이터에서는 대기질정보(미세먼지, 오존)와 수질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대기질정보 미세먼지는 미세먼지예보를 지도로, 시도별 대기오염도는 관측지점별 도시대기측정망의 확정 전 실시간(시간평균)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기질정보 오존은 오존예보를 지도로, 시도별 대기오염도는 관측지점별 도시대기측정망의 확정 전 실시간(시간평균)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질현황은 지역별로 검색기간 동안 그래프와 측정자료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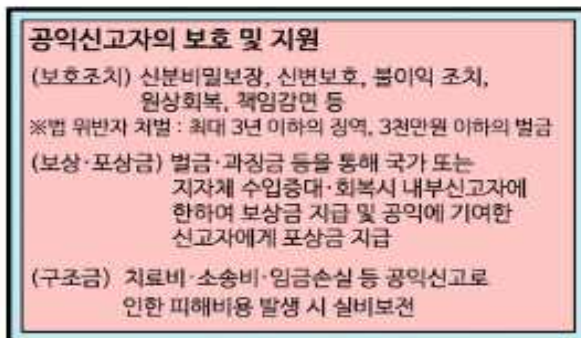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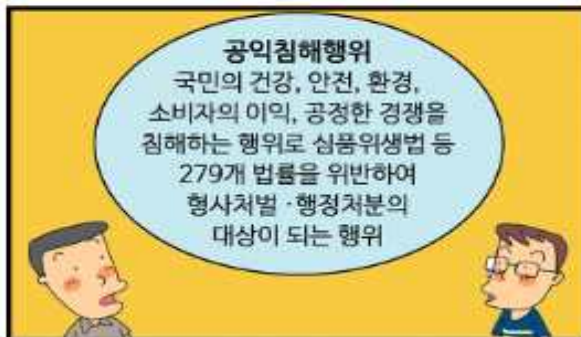
기상청 날씨누리

- 농사에 필요한 날씨정보는 기상청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상청날씨누리에서는 특보·예보, 날씨영상, 바다 날씨, 태풍, 황사, 지진·화산, 관측자료, 기후자료, 생활과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특보·예보에서는 특보·정보, 육상정보, 해상예보, 북한예보, 테마예보, 공항예보, 엘니뇨·라니냐, 예보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날씨영상에서는 레이더, 위성, 낙뢰, 일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다날씨는 현재 바다날씨, 해상예보, 해상수치예측일기도, 해양기상방송, 월별 해양기상도 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태풍은 태풍정보(통보문, 태풍상세정보, 모델예측)와 참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황사는 황사/부유분진 관측 값, 황사/부유분진 관측 그래프, 모델예측, 지상 일기도, 위성영상, 황사관측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간농업정보에서는 특보·예보 > 육상정보 > 중기예보(10일 예보) > 전라남·북도 > 최저/최고기온의 자료와 기후자료 > 국내기후자료 > 평년값자료(30년)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44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